GIST 환경·에너지공학과,
모두가 함께한 '2026 체육대회' 개최

- 대학원생·학부생·교수·직원 등 114명 참여, 전 구성원 어우러진 화합의 장
- 에코·케미·아쿠아·앙상블 4개 팀 구성… 학과 핵심 가치 상징적 구현
- 참여형 프로그램 통해 구성원 유대 증진… 협력 문화 강화 및 연구 시너지 기대

▲ 4월 7일(화) GIST 체육관에서 열린 '2026 환경에너지공학과 체육대회'에서 참가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·지스트, 총장 임기철)은 4월 7일(화) GIST 체육관에서 **'2026년 환경·에너지공학과 체육대회'를 개최**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체육대회는 **환경·에너지공학과 소속 대학원생 78명, 학부생 23명, 교수 6명, 직원 7명 등 총 114명이 참가**해 성황을 이뤘다.

이 행사는 **구성원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, 학과가 지향하는 협력과 융합의 가치를 공유**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특히 체육대회는 **학과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는 4개 팀으로 운영**돼 의미를 더했다. **지속 가능한 환경과 생태 보전을 상징하는 '에코**(Eco)', **에너지·환경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화학기술을 의미하는 '케미**(Chemi)', **수자원의 중요성을 담은 '아쿠아**(Aqua)', 그리고 **다양한 구성원의 조화를 뜻하는 '앙상블**(Ensemble)' 팀으로 나뉘어, 자연스럽게 학문 간 융합과 협력의 메시지를 녹여냈다.

행사는 **임기철 총장의 환영사와 박영준 학과장의 개회사를 시작**으로, **자유투 농구, 탁구, 피구, 신발 양궁 등 체육 프로그램과 카드 뒤집기, 줄다리기, OX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다채롭게 진행**됐다.

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업과 연구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 교류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.

▲ 임기철 총장이 '2026 환경에너지공학과 체육대회'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.

김수빈 석박통합과정생은 "**연구에 매진하느라 평소 자주 만나지 못했던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어 뜻깊었다**"며, "**오늘 함께 뛰고 웃은 경험이 앞으로의 연구 협력과 학과 생활에도 큰 힘이 될 것** 같다"고 소감을 전했다.

임기철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"오늘만큼은 교수와 학생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고 웃으며 즐기는 날"이라며, "**환경·에너지공학과의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훌륭한 연구와 학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**한다"고 밝혔다.

▲ '2026 환경에너지공학과 체육대회'에는 환경·에너지공학과 소속 대학원생 78명, 학부생 23명, 교수 6명, 직원 7명 등 총 114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.

박영준 학과장은 "이번 체육대회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**학과의 단합과 협**

력 정신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"라며, "구성원 모두가 환경·에너지공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한편,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의 핵심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GIST 환경·에너지공학과는 **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'AI 순환경제 클러스터링 특성화대학원'에 선정**됐다.

향후 5년간 최대 47억 5천만 원(연간 약 9억 5천만 원)**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인공지능**(AI)**과 순환경제 5대 분야**(탄소, 자원, 물, 생태, 에너지 순환)**를 융합한 글로벌 고급 인재 양성과 미래 기술 개발**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